

[랩 위드의 AI 기반 솔루션 >](#)

중복성 검토, 선행과제가 많아 보여도, 반드시 빈 자리는 있습니다. (14일 이후부터)



기술사업화 랩 위드

2026.08.13. 10:43 조회 0



댓글 0

URL 복사



정부 R&D 과제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비슷한 국가과제가 이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업 담당자가 정말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중복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과제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중복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끝납니다.

기업에 필요한 것은 그다음, 피해 갈 길을 찾는 일입니다.

NTIS 국가R&D 데이터 연동

남들이 이미 한 연구를 피해, 아직 비어 있는 자리를 찾아 드립니다

국가R&D 연구보고서를 실시간으로 훑어,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디가 남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AI 활용

중복을 피하려면, 먼저 지도를 봐야 합니다

어느 영역이 비어 있는지 알려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확인에 드는 품입니다.

국가R&D 연구보고서를 하나씩 검색해 열어보고, 어디까지 찾아야 충분한지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개 미루다가 신청 직전에 급하게 훑고 넘어갑니다.

랩 위드가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인 AI 인프라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가R&D 연구보고서 검색 기능을 연동한 이 유입니다.

준비 중인 기술이나 과제 주제를 키워드로 넣으면, 국가R&D 연구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검색해 AI가 관련도 높은 순으로 요약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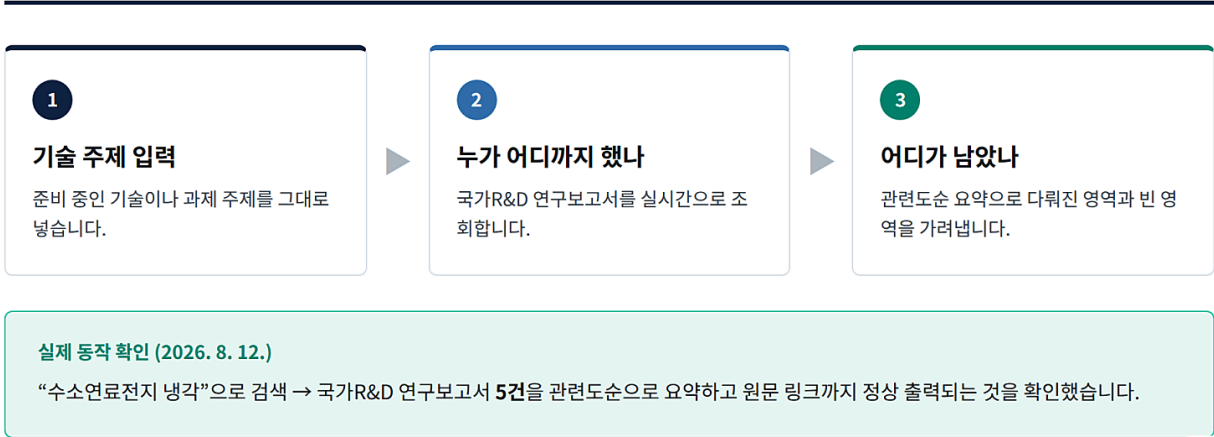
원문 링크도 함께 나오므로 필요한 것만 골라 열어보시면 됩니다.

목록을 훑고 나면 어느 분야에 과제가 몰려 있고 어느 쪽이 비어 있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HOW IT WORKS

중복을 피하려면, 먼저 지도를 봐야 합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지난 8월 12일, “수소연료전지 냉각”이라는 키워드로 실제 검색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국가R&D 연구보고서 5건이 관련도순으로 정리되어, 요약과 원문 링크까지 정상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빈 자리를 찾는 네 가지 각도

선행과제 목록을 그냥 읽으면 “이미 다 했구나” 하는 인상만 남습니다.

아래 네 가지 기준으로 읽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 첫째, 적용처를 바꿉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적용 산업이나 사용 환경이 다르면 별개의 과제가 됩니다. 선행과제가 어느 분야에 몰려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손대지 않은 적용처가 보입니다.
- 둘째, 단계를 옮깁니다. 기초 연구가 이미 두껍게 쌓여 있다면 실증이나 양산 공정 쪽으로, 반대로 응용만 있고 원천이 비어 있다면 그쪽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 셋째, 성능 기준을 올립니다. 선행과제가 도달한 수준을 확인하고, 그보다 높은 정량 목표를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심사에서 가장 잘 통하는 차별화 방식입니다.
- 넷째, 결합해서 새로 만듭니다. 단독으로는 흔한 기술도 서로 다른 두 갈래를 엮으면 선행과제가 없는 영역이 생깁니다.

HOW TO DIFFERENTIATE

중복을 피하는 네 가지 각도

선행과제 목록을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읽으면 비어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적용처를 바꾼다

같은 기술이라도 적용 산업이나 사용 환경이 다르면 별개의 과제가 됩니다. 선행과제가 어느 분야에 몰려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계를 옮긴다

기초 연구가 이미 쌓여 있다면 실증이나 양산 공정으로, 반대라면 원천 쪽으로 위치를 옮깁니다.

성능 기준을 올린다

선행과제가 도달한 수준을 확인하고, 그보다 높은 정량 목표를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결합해서 새로 만든다

단독으로는 흔한 기술도 서로 다른 두 갈래를 엮으면 선행과제가 없는 영역이 생깁니다.

검색은 여기까지 자동으로 좁혀 줍니다. **어느 각도를 택할지**는 기업의 보유 역량과 시장 상황을 함께 봐야 하는 판단이라, 컨설턴트가 함께 정합니다.

AI 활용

검색은 여기까지 자동으로 좁혀 줍니다.

다만 어느 각도를 택할지는 기업이 가진 역량과 설비, 시장 상황을 함께 봐야 하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컨설턴트가 함께 정합니다. 도구만 내놓지 않고 기술사업화 체계 안에 넣은 이유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NTIS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데이터에 접근가능하는 것 자체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들인 부분은 그다음입니다.

검색 결과를 사람이 하나씩 열어보지 않아도 되도록 AI가 읽고 정리하게 만들었고, 이 기능을 별도 서비스로 떼어놓지 않고 과제기획 실무로 곧장 이어지도록 컨설팅 체계 안에 넣었습니다.

모든 처리는 사내 서버 안에서 이루어져 고객이 맡기신 기술 자료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것과, 준비 중인 것

현재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빈 영역을 찾는 선행과제 검색입니다.

기획서를 쓰는 도중에 유사 선행과제를 자동으로 대조하고 차별성 문단까지 만들어 주는 기능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시스템은 구축했으나 실사용 검증을 마치지 못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ROADMAP

지금 쓸 수 있는 것과, 준비 중인 것

현재 단계를 있는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단계	내용	상태
빈 영역 찾기	국가R&D 보고서를 훑어 다뤄진 영역과 남은 영역 정리	지금 이용 가능
차별성 문단 자동 작성	기획서 작성 중 선행과제 자동 대조 후 차별성 서술 생성	출시 예정
국가R&D 지형도	연도별·기관별 집계로 경쟁·협업 동향 파악	일부 구현
기술소개서 자동생성	투자자용 기술소개서·간이 가치평가 초안	향후 과제

※ ‘출시 예정’·‘향후 과제’ 항목은 아직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AI 활용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정부 R&D 과제를 준비 중인 기업 담당자라면, 기획 초기에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써놓고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비어 있는 자리를 겨냥해 쓰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기술이전이나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면, 보유 기술의 신규성을 국가R&D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새롭습니다”라는 말보다 “국가R&D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이 영역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라는 말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려면(14일 이후부터)

홈페이지의 [무료 진단] 메뉴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찾아 주십시오. 키워드 한 줄이면 됩니다.
기술사업화 랩 위드는 기술이전, 연구개발 사전기획, 사업모델 도출, 시장조사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까지 기술과 시장 사이의 간극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기술사업화 랩 위드

댓글을 남겨보세요



등록